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7. 15

주간 달러/원 동향(7/8~7/12)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6월 실업률 상승 등 고용 냉각 시그널에 달러 약세 나타나며 환율은 하락 출발했으나 수급상 결제수요 유입에 반등. 이어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소폭 하락
- 중반, 파월 의장이 정책기조 전환 관련 신중한 스탠스를 강조한 점이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가운데 중국 저물가 지속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동조화되며 상승
- 후반, 고용 약화 리스크를 우려한 파월 의장의 도비시한 발언과 매파적인 금통위 결과를 소화하며 1,370원대로 하락. 이어 주 후반, 미국 6월 CPI 둔화로 인한 9월 금리인하 기대와 달러 약세에도 수급상 매수 우위에 소폭 상승 마감

달러/원 전망

- 주중에 발생한 트럼프 공화당 후보 피격 소식에 따른 여파가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하지만, 여전히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존한다는 측면과 미 대선후보 피격 소식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엔화 등 일부 통화 강세를 통해 역으로 달러 약세 흐름 지지할 가능성 등도 상존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
- 상기 요인들의 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 시 원화 환율은 1,380원 수준에서 등락 흐름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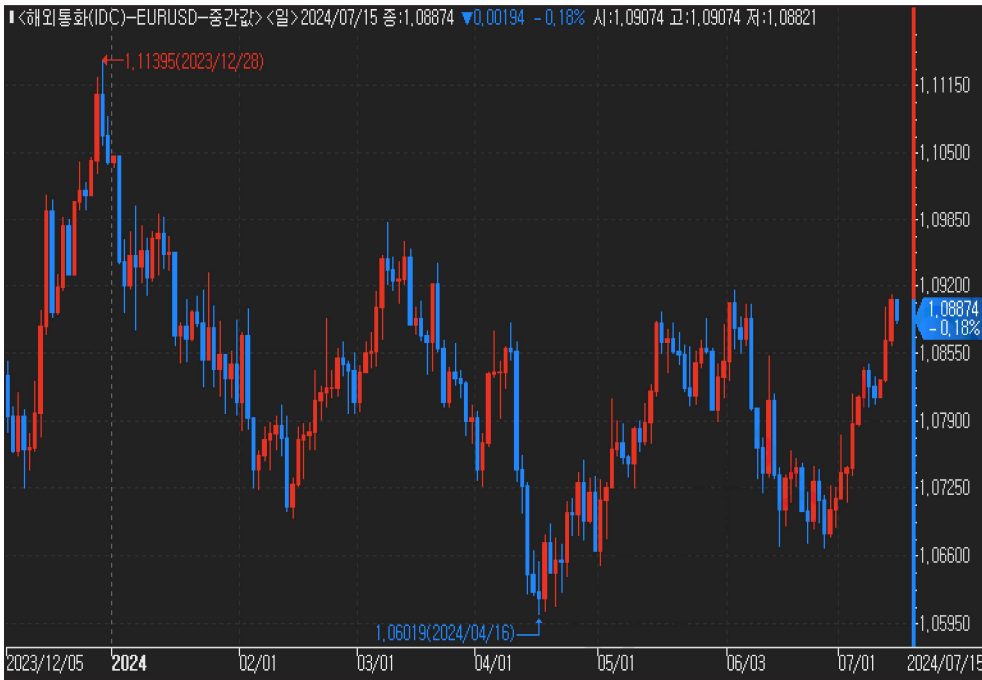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	------	------	------	------

1,376.1	1,388.1	1,370.0	1,379.6	-3.5
---------	---------	---------	---------	------

예상거래범위

1,375원 ~ 1,385원

엔·유로화 동향 (7/8~7/12)



유로화 동향

- 주초, 프랑스 조기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승리했으나 과반 확보 정당 부재로 불확실성 지속되며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무디스의 프랑스 총선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약세 지속
- 중반, 물가와 고용 안정의 균형을 강조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이 비둘기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 시현
- 후반, 미 6월 CPI가 예상치 보다 큰 폭으로 둔화된 측면이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가운데 추가 강세를 보임. 이어 주 후반, 미국 소비 자심리 냉각으로 인한 달러 약세에 강세 흐름이 지속되며 1.09달러대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정책 보고를 앞두고 경계심이 나타나면서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 시기 언급 부재로 인한 실망감에 미 국채금리 상승한 영향으로 약세 지속
- 중반, 다소 도비시하게 평가된 파월의 추가 발언에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된 영향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
- 후반, 미국 6월 CPI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된 측면이 글로벌 달러 약세를 견인함과 동시에 일본 당국의 개입 추정 움직임이 나타나며 엔화는 큰 폭의 강세를 시현. 이어 주 후반, 일본 당국의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 강세 나타나며 157엔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39	1.0911	1.0802	1.0907	+0.0068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60.8	161.8	157.4	157.9	-2.9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7/8~7/12)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국 6월 비농업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실업률이 4.1%로 상승하며 고용지표의 과거 수치가 하향조정되는 양상 등으로 미국채금리 하락 시현 속 국고채 금리도 소폭 약보합. 이어 금통위를 앞둔 상황에서 한은의 국회 업무보고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 속 국고채 금리는 장기구간 중심 하락
- 중반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 강화 등 긍정적 수급 영향에도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 속에 소폭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7월 금통위의 매패적 해석으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 지속. 이는 한은 총재 회견의 '시장이 금리 인하에 너무 앞서갔다'는 평가를 통해 인식된 형국 다만, 전일 연준의장 발언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진 측면은 금리 상단을 제한. 이어 주 후반, 전일 미국 6월 CPI가 월간 대비 2020년 5월 이후 처음 하락 흐름을 보인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강화 등으로 하락 전환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전주 뉴욕증시 상승과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속 국내외 금리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음에도 기관 차익 실현 강화 등으로 약보합 출발. 이어 주요 물가지표 발표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우위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중심 매수세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연준 의장의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언급이 배제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물가지표 발표에 모아지며 강보합 흐름 시현
- 후반 들어, 뉴욕증시가 기술주 강세를 보이며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파월 의장의 이틀에 걸친 하원 발언에서 2% 물가 목표 달성 전이라도 금리인하가 가능함을 제시함에 따라 외국인 순매수 강화 속 상승 지속. 이어 주 후반, 뉴욕증시 단기 과열에 따른 기술적 하락 영향 등으로 큰 폭 하락하며 마감